

농촌거주 노인들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융합적 연구: 성별과 자존감을 중심으로

강영실¹, 홍은영^{2*}

¹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건강과학연구원 교수, ²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on Death Anxiety in Rural Elderly: Focused on gender and self esteem

Young-Sil Kang¹, Eun-Young Hong^{2*}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농촌거주 노인들의 죽음불안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융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J시에 소재한 12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인 농촌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 총 170명을 편의추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회귀분석을 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0.0±6.42세였고, 자존감은 평균 3.3±0.58, 죽음불안은 평균 2.5±0.32였다. 자존감과 죽음불안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173, p=.0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남성)과 자존감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성별(남성)이 죽음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beta =.199, p=.009$), 다음으로 자존감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었고($\beta =-.171, p=.023$), 이들 두 변수는 죽음불안을 총 5.8%($F=6.238, p=.002$) 설명하였다. 추후 보건진료소 단위의 관할구역 거주 노인을 위한 지역단위의 건강증진사업 수행시 남성노인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자존감 증진 중재를 통해 죽음불안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노인, 죽음, 불안, 자기개념, 간호,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factors influence death anxiety in rural elderly. A convenience sample of 170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12 local public helath clinic's jurisdiction in J city. The data analysis was done by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1.0. The average of age was 80.0±6.42. The average of self esteem and death anxiety were 3.3±0.58 and 2.5±0.32. Self esteem and death anxiety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r=-.173, p=.024$). Gender(male)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death anxiety($\beta =.199, p=.009$) and self esteem was the second predictor of death anxiety($\beta =-.171, p=.023$). Gender(male) and self esteem explained total 5.8%($F=6.238, p=.002$) of death anxiety. We demonstrated that gender(ma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ath anxiety in rural elderly. The finding of this study indicate a need to design and implement gender-specific interventions to reduce death anxiety through increasing self esteem in rural elderly.

Key Words : Elderly, Death, Anxiety, Self concept, Nursing,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Hong(heyne@hanmail.net)

Received January 21, 2020

Accepted April 20, 2020

Revised March 20,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9%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1],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노년기에는 강제퇴직,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협, 심리적 고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영혼적, 신체적 요인들이 정신·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2], 죽음에 대해 실질적으로 많은 의식을 하는 시기이다. 특히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인생 단계로,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죽음은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이자 불안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죽음은 삶의 주기 중의 한 부분으로 그 불가피함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다[3]. 인간은 삶의 한계와 임박한 죽음을 인지하는 유일한 종으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며,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안고 있다. 특히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죽음을 더욱 두려워한다[4].

죽음불안은 보편적이며 기초적 현상으로 다양한 수준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3], 죽음불안의 정도는 개별적인 것으로, 지나치면 우울 및 자살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5].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불안을 더 느끼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5.4%가 배우자, 친구 등의 사망이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6].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죽음불안은 지난 삶에 대한 후회나 예측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며[7], 이러한 죽음불안은 현재 삶에 대한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8],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노년기 삶 전체가 불안해지고 불만족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긍정적, 적극적 자세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9].

노년기에는 다양한 상실경험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가중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죽음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한데[10], 인지적 조절요인의 하나로 자존감은 정서적, 인지적, 평가적 요소가 포함된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노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11]. 하지만, 죽음불안과 자존감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2]가 있었으며, 다른 연

구는 거의 찾기 어려워 노인의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인지적 조절요인 중 하나로 자존감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농가 44.7%, 어가 36.3%, 임가 42.3%로 [13]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 14.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농촌 지역 주민은 도시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 수준, 비위생적인 환경, 노동집약적인 생산활동,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보건의로 취약계층인데[14],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죽음불안 관련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적 자료조사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농촌거주 노인들의 자존감 및 죽음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과 죽음불안의 차이를 파악하여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융합적으로 확인하고, 추후 농촌거주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거주 노인들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농촌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 자존감, 죽음불안을 파악한다.
- 농촌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및 죽음불안의 차이를 파악한다.
- 농촌거주 노인의 자존감 및 죽음불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농촌거주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연구는 농촌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 자존감, 죽음불안의 차이를 파악하고,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한 12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인 농촌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보조원이 해당지역 내 노인 회관 및 가구방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구두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5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38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설문지 총 200부를 배부하였고 18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10부를 제외하고 17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존감(Self esteem)

정중현과 최수일[14]이 자존감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수정, 보완한 6문항의 측정도구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중현과 최수일[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 = .82$ 이었다.

2.3.2 죽음불안(Death anxiety)

Collett와 Lester[15]의 FODS (Fear of Death Scale)를 Suh[2]가 번역한 도구를 Sim[16]이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20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8개의 부정문항은 역산하였고,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im[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존감, 죽음불안은 서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및 죽음불안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자존감 및 죽음불안의 상관관계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비밀보장 및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Table 1과 같이 80.0±6.42로, 80세 미만인 노인이 40.6%, 80세 이상인 노인이 59.4%였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101명(59.4%), 남성이 69명(40.0%)이었고 여성노인의 평균연령은 81.3±5.85세, 남성노인의 평균연령은 78.0±6.73세였다. 이들 중 독거노인은 51.8%였으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46.5%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60.0%였고, 종교가 있는 사람은 60.6%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Year) 65-95	<80	69(40.6)	80.0±6.42
	≥80	101(59.4)	
Sex	Female	101(59.4)	-
	Male	69(40.0)	
Living alone	No	82(48.2)	-
	Yes	88(51.8)	
Education*	No	89(52.4)	-
	≥Elementary school	79(46.5)	
Job	No	68(40.0)	-
	Yes	102(60.0)	
Religion	No	67(39.4)	-
	Yes	103(60.6)	

*Missing values were excepted

3.2 연구변수의 서술통계

대상자들의 자존감은 Table 2와 같이 평균 3.3±0.58 이었고, 죽음불안은 평균 2.5±0.32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Self esteem (1-5)	3.3±0.58	1.67	4.83
Death anxiety (1-4)	2.5±0.32	1.60	3.3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이 유의한 변수가 없었으며, 죽음불안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652, p=.009$),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죽음불안이 높았다.

Table 3. Differences of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 Esteem		Death anxiety	
		M±SD	t(p)	M±SD	t(p)
Age(Year)	<80	3.3±0.64	0.612 (.541)	2.5±0.33	-0.665 (.507)
	≥80	3.3±0.54		2.5±0.30	
Sex	Female	3.3±0.58	0.144 (.886)	2.5±0.32	-2.652 (.009)
	Male	3.3±0.60		2.6±0.29	
Living alone	Yes	3.3±0.58	-0.587 (.558)	2.5±0.33	-1.178 (.240)
	No	3.3±0.59		2.5±0.30	
Education *	No	3.3±0.59	-0.442 (.659)	2.5±0.36	-0.575 (.566)
	≥Elementary school	3.3±0.59		2.5±0.27	
Job	Yes	3.3±0.62	1.235 (.219)	2.5±0.31	0.081 (.936)
	No	3.2±0.53		2.5±0.32	
Religion	Yes	3.3±0.59	-0.404 (.687)	2.5±0.32	-0.936 (.351)
	No	3.3±0.58		2.5±0.34	

3.4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자존감과 죽음불안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이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173, p=.0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Variables	Self esteem r(p)
Death anxiety	-.173(.024)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death anxiety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754	.136	-	10.111	<.001
Sex(male)	0.128	.048	.199	2.660	.009
Self esteem	-0.093	.041	-.171	-2.294	.023
Adj R ² =.058, F=6.238, p=.002					

3.5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죽음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인 성별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남성을 기준으로 투입하였고 자존감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죽음불안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남성)이었으며, 죽음불안은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beta =.199, p=.009$), 자존감은 죽음불안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beta =-.171, p=.023$), 두 변수는 죽음불안을 총 5.8%($F=6.238, p=.002$) 설명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농촌거주 노인들의 죽음불안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융합적으로 확인하여 추후 농촌거주 노인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J시의 12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인 농촌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여성이 59.4%, 남성이 40.6%였으며,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0.0±6.42세였고 여성의 평균연령은 81.3±5.85세, 남성의 평균연령은 78.0±6.73세였다.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은 79.7세, 여자의 기대수명은 85.7세[13]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높으며, 우리나라 노인 중 여자의 비중은 57.1%로 남자 42.9%보다 14.2% 높고[1] J시가 위치한 G도의 2019년 상반기 주민등록인구통계[17]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전체의 15.9%로 전국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며, 여성노인이 58.5%, 남성노인이 41.5%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비 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 중에서 독거 중인 비율은 전체의 51.8%로, 우리나라 독거노인 비율 19.4%[1] 보다 높았으며, 농촌 고령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노인 중 남성노인은 독거비율이 9.0%, 여성노인은 38.9%로[18], 본 연구

대상자들도 여성노인의 독거비율이 남성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부분 지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거주지역이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외곽지역의 읍면으로 농촌지역 전체의 읍면·동을 모두 포함한 결과보다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대상자들 중 무학인 경우는 전체의 52.4%로 이는 우리나라 농촌노인 중 무학이 30.5%[18]라는 결과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농촌노인 전체의 평균보다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자존감은 평균 3.3 ± 0.58 이었고, 여성노인은 3.3 ± 0.58 , 남성노인은 3.3 ± 0.60 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한 정종현과 최수일[14]이 60세 이상 강원도 거주 노인 2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여성노인 평균 3.28 ± 0.64 , 남성노인 평균 3.3 ± 0.69 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정종현과 최수일[14]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죽음불안은 2.5 ± 0.33 이었고 여성은 2.5 ± 0.32 , 남성은 2.6 ± 0.29 로 남성의 죽음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Sim[16]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 ± 0.70 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남성과 여성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Hwang[19]의 연구에서는 경북의성군 읍면 거주 65세 이상 남성노인 42명과 여성노인 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죽음불안은 평균 2.5 ± 0.50 (4점 척도 변환)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워, 도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 본 결과, Kim[20]은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경로당 13곳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2 ± 0.53 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Park[21]은 경기도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 ± 0.47 (4점 척도 변환)이었으며,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Russac 등[22]은 18세에서 87세의 성인 남녀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따른 죽음불안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상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자들은 농촌지역의 읍면으로 도시지역의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는 그 특성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그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령에 따라 80세 미만과 80세 이상인 군에서 죽음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Kim[20]의 연구에서는 60대, 70대, 80세 이상 세 군을 비교했을 때 80세 이상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죽음불안이 높다고 하였으며, Kwon과 Kim[23]은 충남소재 2개 군 지역 독거노인 중 노인대학에 등록된 남성노인 39명과 여성노인 1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의 세 군을 비교했을 때 65-74세와 75-84세인 군이 85세 이상인 군에 비해 유의하게 죽음불안이 더 높다고 하였고, Kim 등[24]의 연구에서는 죽음불안의 하위영역인 '사후결과불안'과 나이 간에 역상관계가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나이에 따른 죽음불안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19]도 있어 선행 연구에서 상반되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추가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독거여부에 따른 죽음불안이 차이가 없었는데, Kim[25]의 연구에서도 독거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유무로 분류한 Kim[26]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들이 정규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따른 죽음불안에 차이가 없었는데, 선행연구들[19, 23, 25]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교유무에 따른 죽음불안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선행연구들[17, 19, 21, 25, 26]에서도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적 낙후된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불안에 관해 최초로 수행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남성인 경우 죽음불안을 증가시키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남녀의 기대수명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대상자인 남성의 평균연령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여성의 평균연령과 기대수명의 차이보다 작아 스스로 죽음이 가깝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거주지역 내 남편을 사별하고 독거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고, 비슷한 또래의 남성 주민의 죽음을 경험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죽음불안이 높아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추후 노인의 죽음불안 연구에서는 기대수명이나 스스로 죽음이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나이와 죽음불안 및 성별과 죽음불안 간에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나이, 성별과 죽음불안 세 요인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성별이 나이와 죽음불안 사이의 매개요인으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존감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세근[12]의 연구에서 자존감이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beta = -.201, p < .05$)이라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오미나[27]는 죽음불안을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자존감의 영향력을 분석했는데, 죽음불안의 3개 하위영역 모두에 대해 자존감이 유의한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beta = -.284 \sim -.401$)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자존감은 노인들의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으로서 추후 노인 죽음불안 감소 중재 프로그램에서 효과적 전략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는 일부 지역의 대상자에 한정된 결과이므로 그 대표성에 한계로 결과해석에 제한이 따르며 추후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수를 최소화하여 노인 맞춤형 죽음불안 측정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죽음불안에 대한 설명력은 5.8%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이 대상으로 한 도시거주 노인이나 농촌지역의 노인복지관을 다니는 노인들과 본 연구대상자인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노인들과는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추후 이들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보건진료소 관할 농촌지역의 읍면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계획할 때는 성별에 따른 죽음불안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히 남성노인은 죽음불안 감소 중재프로그램의 우선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존감 증진을 통해 죽음불안을 완화하는 전략이 포함된다면 죽음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웃주민이나 가족 등의 죽음을 경험한 노인들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서 자존감 및 죽음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융합적으로 확인하여 추후 농촌지역 단위의 건강증진 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농촌거주 노인들의 죽음불안은 일반노인의 죽음불안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죽음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다. 남성은 죽음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며, 자존감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추후 농촌거주 노인을 위한 지역단위의 건강증진사업 수행시 남성노인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자존감 증진을 통해 죽음불안을 낮출 수 있는 중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9). *2019 Statistic on the aged*. Statistics Korea[Onlin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aSeq=377701
- [2] H. K. Suh. (1987). A study on death attitude of elderly in Korea and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7, 39-61.
- [3] G. Sinoff. (2017). Thanatophobia (Death Anxiety) in the elderly: The problem of the child's inability to assess their own parent's death anxiety state. *Frontiers in Medicine*, 4(11), 1-5. DOI : 10.3389/fmed.2017.00011
- [4] S. Kagan. (2012). *Death*.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5] M. S. Lee.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an death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9, 241-265.
- [6] Statistics Korea. (2014, September). *2014 Statistics on the Aged*. Statistics Korea[Onlin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aSeq=330349&pageNo=5&rowNum=10&amSeq=&sTarget=&sTxt=
- [7] K. E. Chang. (2011). The effects of ego integrity on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0(5), 917-926. DOI : 10.5934/KJHE.2011.20.5.917
- [8] R. A. Neimeyer., J. M. Currier., R. Coleman., A. Tomer & E. Samuel. (2011). Confronting suffering and death at the end of life: the impact of religiosity, psychosocial factors, and life regret among hospice patients. *Death Studies*, 35, 777-800.

- [9] K. H. Jo & H. J. Lee. (2011). The impact of death anxiety and personal meaning of death on the attitude of dignified death among Korean mid-life and the elderly: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mmunication proc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3, 482-493.
- [10] S. H. Roh & S. H. Lim. (2011). A Study about the model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ath anxiet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1), 1-14.
- [11] J. Greenberga, S. Solomonb, T. Pyszczynskic, A. Rosenblattd, J. Burlingel, D. Lyonf, L. Simonf & E. Pinel. (1992).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Converging evidence that self-esteem serves an anxiety-buffering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13-922. DOI : 10.1037/0022-3514.63.6.913
- [12] S. G. Oh, J. Cho, Y. H. Kim & J. M. Choi. (2012). Influence of depression on psychological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moderate effect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2), 243-254. DOI : 10.5392/JKCA.2012.12.02.243
- [13] Statistics Korea. (2019). *2018 Agriculture, Forestry & Fishery Census Report*. Statistics Korea[Online], 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600011942
- [14] J. H. Jeong & S. I. Choi. (2011).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8), 47-61.
- [15] L. J. Collett & D. Lester.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72, 177-181.
- [16] M. K. Sim.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death anxiety and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people*.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Busan.
- [17] Gyeongsangnamdo. (2019). *Resident registration statistics*. Gyeongsangnamdo[Online]. www.gyeongnam.go.kr
- [18]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5). *Report of the aged in the rural are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Online]. www.prism.go.kr
- [19] H. Hwang. (2019).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among rural elderly.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4(2), 111-116. DOI : 10.21032/jhis.2019.44.2.111
- [20] H. Y. Kim.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death anxiety and life meaning of the elderly on somatization ; focusing on local community*. Master's thesis. Kaya University, Gimhae.
- [21] M. S. Park. (2019). *The effects of death anxiety on the ego integrity of the elderly people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Gyeonggi-do.
- [22] R. J. Russac., C. Gatliff., M. Reece & D. Spottswood. (2007). Death anxiety across the adult years: An examination of age and gender effects. *Journal of Death Studies*, 31(6), 549-561. DOI : 10.1080/07481180701356936
- [23] Y. E. Kwon & S. Y. Kim.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3), 262-269. DOI : 10.5762/KAIS.2016.17.3.262
- [24] G. T. Kim., J. Y. Song & J. H. Chung. (2018). The effect of death anxie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1), 125-153. DOI : 10.15709/hswr.2018.38.1.125
- [25] B. Kim. (2015). *Relationships among networks, death anxiety, and self-rated health in the elderly*. Master's thesis. Ehwa University, Seoul.
- [26] Y. H.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 Based on the ecology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 [27] M. N. Oh. (2002). *A study on self-esteem, death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home and fac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Daegu.

강 영 실 (Young-Sil Kang)

[상화]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0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지역사회 간호,

건강증진

· E-Mail : kangys@gnu.ac.kr

홍 은 영 (Eun-Young Hong)

[상화]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국립 경상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건강증진, 보건

교육

· E-Mail : heyne@hanmail.net